



2024년 3호  
2024.4.25.

#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장창열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세계 노동절”

## 회계공시·타임오프·교섭창구단일화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에 나서자

###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매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May Day)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 아래 연대와 단결을 확인하고 투쟁하는 날이다. 1886년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투쟁하던 현실과 2024년 노동자들의 현실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교섭창구단일화로 노동조합의 권리인 교섭권을 박탈당했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노동3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은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을 개악하여 주69시간까지 늘리려하고 조합비 회계공시, 타임오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 역대급으로 막나가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온갖 규제완화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으로 일관했다.

4월10일 총선에 여당의 참패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자본편들기로 일관한 오만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노동조합을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고 공격했다. 비리와 폭력집단 프레임에 씌워 건설노조를 탄압했고 작년 5월 1일 양회동열사가 분신으로 항거하며 투쟁했다.

### 금속노조에 도전장 던진 윤석열, 금속노조의 저력으로 끝장내자!

윤석열 정권은 금속노조에 도전장을 던졌다. 타임오프에 대해 “자동차, 조선, 철강업종과 1천인 미만 사업장을 기획 감독하겠다.”며 금속노조를 콕 집어 조준하고 나섰다.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조합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원에 세액공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 금속답게 투쟁하고 금속답게 승리하자

금속노조는 어떤 조직인가? 오직,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걸고 투쟁해 온 수많은 선배 열사들의 정신으로 오늘의 금속노조가 존재한다. 금속노조는 패배할지언정 굴복하지 않았으며 끈질기게 싸워 결국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금속노조를 만만히 보고 싸움을 건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의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자.

### ■ 지역별 노동절대회 장소

지역별	지역별 대회 일시, 장소
서울본부	5.1(수) 14시 서울 동화면세점
경기본부	
인천본부	5.1(수) 14:00 인천시청입구삼거리
충북본부	5.1(수) 14:00 청주현대미술관
대전본부	5.1(수) 10:30 대전시청 보라매공원
세종충남본부	5.1(수) 10:30 천안터미널
전북본부	5.1(수) 14:00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본부	5.1(수) 11:00 광주시청 앞
전남본부	5.1(수) 15:00 순천조례호수공원
대구본부	5.1(수) 14:00 대구시의회 앞
경북본부	5.1(수) 14:00 구미시청
부산본부	5.1(수) 15:00 거제해맞이로
울산본부	5.1(수) 14:00 태화강 역 광장
경남본부	5.1(수) 14:30 창원시청 앞
강원본부	5.1(수) 14:00 춘천 중앙로
제주본부	5.1(수) 10:00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2024 노동절 핵심 요구

- 최저임금 인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조법 2·3조 개정!
- 회계공시, 타임오프 노조 탄압 중단!
- 부자 증세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산별교섭 제도화!

# 자본주의에 맞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세계 노동절 역사와 정신

##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을 수탈하던 1886년, 30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 모여 “8시간 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조 할 권리 보장” 을 외치며 투쟁했다.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며 진압했고 시위를 주동한 7명의 활동가를 처형했다.

이후 1890년 국제 노동운동단체는 헤이마켓 시위가 벌어졌던 5.1일을 기리며 자본주의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날로 정했다. 이후 매년 5월 1일에는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다.

※ **왜 그럴까?** 5월1일, 세계 노동절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 등 5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기념하거나 다른 명칭을 쓰기도 한다. 왜 그럴까? 한국도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5월 1일을 3월 10일로 바꾸고 명칭도 “근로자의 날” 로 강제했다. 다른 날, 다른 명칭으로 바꾼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자본가들의 속셈이 숨어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단결, 연대 정신이 깃든 “메이데이 정신과 역사” 를 지우고 단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3월 10일을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 을 “노동절” 로 되찾는 것은 단순히 날짜와 이름을 되찾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 정권이 지우고 싶은 “우리의 역사 - 노동자계급의 투쟁 정신” 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 한국의 노동절 역사

5월 1일을 한국노총 전신인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강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으로 되찾은 5월 1일, 그러나 아직도 명칭은 “근로자의 날”

- 1923년~1945년 자주적 민주노조의 5.1 세계 노동절 투쟁 전개, “8시간 노동제, 임금인상, 고용보장” 요구.
- 1957년~ 이승만 정권이 민주노조를 깨고 어용 대한노총 설립, 노동절을 대한노총 창립일 3월 10일로 변경.
- 1963년~ 박정희 정권 노동절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변경,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지우고 정부와 자본이 어용노총 간부와 소위 말 잘 듣는 ‘근로자’들을 불러서 포상하고 시혜적으로 주는 휴일로 인식하게 함.
- 1989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89년 100회 노동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 굴욕적인 근로자의 날 청산하고 투쟁하는 노동절 회복 선언.
- 1994년~ 법으로 날짜는 되찾았으나 이름은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며 이름을 되찾는 과제가 남겨져 있음. 1994년 이후 민주노총은 해마다 5월 1일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



## [역사와 나] 나에게 노동절은?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138년 전 5월 1일 투쟁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처형된 노동자의 법정 최후 진술이다. 그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이 들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August Spies, 1855~1886)